

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내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7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국선대리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

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전라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영유아 부모 대상 토크콘서트 진행... '우리아이 건강 꿀TIP' 제공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차경희)는 지난 26일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 15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건강 꿀TIP'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우리 아이의 편식에 개선 및 연령별 두뇌발달과 훈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른 식습관연구소 김아람 대표와 정소아

청소년과의원 정우석 원장이 강사로 나섰다. 두 강사는 각각 '편식유형별 식지도별', '연령별 뇌 발달에 따른 똑똑한 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교육했다.

이어서 학부모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아람 대표와 정우석 원장은 학부모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습관 지도 방법, 발달 과정에 대

해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방법을 제시해 줘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육이는 알수록 어렵지만 몰랐던 지식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다른 부모님들의 질문을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어떻게 키워야할지 많은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차경희 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2회

째 진행되는 강의와 토크콘서트를 토대로 참여해주신 많은 학부모들이 영유아들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의 위생·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위해 어린이건강생활실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체험과 캠프에 참여,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서 쉽게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강정희)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돼 올해 말까지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다.

표준형 수행기관에 선정된 전북대는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시설을 인근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 및 인근 병원 간호인력에 제공해 거점 교육 시스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학생 실습 교육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구축한 시뮬레이션센터를 지역 간호 관련 학생 및 인력 등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 간호대학은 실습 교육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시뮬레이션센터에서 기본간호학실습을 비롯해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일반병실, 방문간호실습실, 신생아실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2기 수료식이 지난 26일 전주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벤처기업으로!

전주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성료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가 공동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2기 수료식이 지난 26일 전주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도가 지원하는 중소벤처리더스 최고경영자과정은 '벤처가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라는 벤처슬로건의 의미를 담아 전북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주대 LINC+사업단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가 공동 운영하는 전북

중소벤처리더스포럼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3월 입학한 50명의 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대표는 15주 동안 매주 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명사특강, 창조 경영교육, 디지털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이경상 카이스트 교수, 조봉연 한국 ICTSW 총연합회 회장 등 국내 최고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장의 시장 트렌드에

대한 명사특강이 이뤄져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 원우회(회장 정춘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과 전주대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춘호 원우회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주대의 노력에 감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은 "지역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학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수산물·복합 산업 활성화 '탄력'

전북대, 진도군과 농수산물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진도군(군수 이동진)과 서남해안 농수산물 융복합형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5일 전북대 8층 대회의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이동진 군수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농수산물 융복합형 START-UP 플랫폼 구축사업은 서남해안 농수산물 특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관·연의 공간적 통합을 이루는 START-UP 플랫폼 센터를 진도군에 신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남해안 농수산물 융·복합 관련 우수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화 공간 및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서남해안에 분산돼 있는 저부가가치 농수산물 제조업체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서남해안을 농수산물 융·복합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 활



성화와 수출 중심의 농수산물·복합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서남해안 전략 산업 육성 및 기술·산업 융·복합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의 농수산물 융·복합 관련 기업 등 혁신자원을 집중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혁신역량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서남해안 농수산업을 발굴·육성해 대한민국 농수산물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진도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전주비전대, 도내 유일 '직업교육 거점' 전문대학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 '후진학 선도형(III유형)' 지원대상으로 도내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은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로서 성인들의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며 지역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사전경험 학습인정제를 비롯한 온라인 원격교육 등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직업교육을 원하는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과정 이수를 원하는 지역 근로자들은 무료로 수강하거나 소정의 수강료만 내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민들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직업교



육을 제공하며 한해 10억원씩 3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홍순직 총장은 "전주비전대학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직업교육 거버넌스를 하나로 집약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지역 성인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 상생을 고려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군산 고용(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통해 군산 지역 고용확대도 도울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